

合用並書의 音價考

權 在 善

目 次.....

I. 序	V. 先行子音「入~」과 「日~」
II. 合用並書의 制約性	身 制約性과 그 音價
III. 先行子音의 制約性과 國語의 特性	VI. 「吸~」 두 先行子音과 結合한 複子音
IV. 間音과 音價外 字子音	VII. 語頭複子音과 音價

I 序

子音 合用並書는 異字 끼리 結合한 것 으로 初聲과 終聲의 경우를 함께 이르는 것이다.

終聲複用初聲……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訓民正音 本文)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舛爲地 叱爲隻 訾爲歛之類

終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 畜爲土 卦爲釣 畜則爲匹時之類(合字解)

이들의 字形이 複音임을 示唆함은勿論이고 다음 점으로 보아 이들이 複音임을 疑心할 餘地가 없다.

첫째, 初聲이나 終聲이 꼭 같은 結合方法으로 說明되어 있는데, 終聲은 複音임이 分明하므로 따라서 初聲도 複音이겠다.¹⁾

둘째, 다음 같은 例의 合用初聲은 앞 音節의 末音이 뒷 音節의 初聲에 結合한 것²⁾으로 複音임이 分明하다.

송가라(月釋18:44) 손작라(月釋7:38)

잇막장(月釋2:62) 이չ장(釋譜13:37)

입사(龍虎111) 어비(樂軌·處容)

밥듯하고(釋譜6:34) 말띠(內1:6)

1) 이 글은 事實은 이미 注目되어 왔다.

許雄: (改稿新版) 國語音韻學 1976 p. 320

이처럼 初聲의 並書와 終聲의 並書가 다 같이 複子音임이 分明하다 하더라도 그 音價가 같으냐 다르냐는 것은 眼혀 보아야 할 問題이다.

첫째 現代國語로 보아서 初聲에 두 개 세 개의 子音이 結合될 수 없어 初聲의 複子音은 終聲의 경우와 同一하게 取扱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初聲複子音의 子音結合과 終聲複子音의 子音結合을 比較하면 그結合하는 樣狀이나 그 制約이 서로 다르다.

中世語의 終聲結合의 樣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世語의 終聲結合의 類型은 母音 다음에 「ㄹ」[r] 이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와 鼻音이 오는 경우로 나누인다. 이 세 가지 類型別로 살펴보기로 한다.

(A) v(c)(s)

v	느루샤(龍1)
vc	남곤(龍2) 일(龍1) 양온(龍24) 마가리히가(龍15)
vc^{-s} s	쳤(訓民)

(B) vr(c^{-s})(s)

vr	불휘(龍2)
vrc	하늘풀(龍68) 봄게(釋譜9:35) 오늘나래(龍16)
vrcs	봄듯한고(釋譜6:34) 봄모색(月釋10:18) 울거든(圓上一之二10:118)

(C) vn { (c^{-s}) }

vn	남곤(龍2)
vnc	사롭쁘니(龍15) 눈즈수(釋譜11:19) 洪ㄱ字(訓民)
vns	아바님위해(龍28) 염고(月釋2:73) ²⁾

* 위의 記號에서 c는 r音을 除外한 모든 子音을 나타내고 c^{-s}는 r과 s音을 除外한 모든 子音을 나타내며 n는 鼻音(nasal)을 나타낸다. 그리고, v는 母

2) 中世語에서 「ㅅ」[s] 이 音節末音으로 날 때는 內破하여 [t¹]로 實現되었으리라는 見解가 있으나 筆者는 末音에서도 역시 [s] 音은 [s]로 實現되었다고 본다. 末音에서 「ㅈ」[ts], 「ㅊ」[ts^b] 등이 「ㅅ」[s]으로 表記된 것도 [t¹] 音으로 中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ㅊ」[ts^b], 「ㅈ」[ts] 등이 「ㅅ」[s]으로 中和한 것으로 보고 末音의 「ㅅ」은 [s]音이라고 본다. 그것은 中世語의 八終聲은 「ㅊ. ㅈ. ㅅ. ㅅ」이 「ㅅ」으로 中和되었음을 보이거나 「ㅅ」[s]과 「ㄷ」[t]이 末音에서 辨別되고 있으므로 「ㅅ」[s]이 內破하여 [t¹]化했다면 辨別機能은 消滅되고 말기 때문이다. 末音에서 「ㅅ」과 「ㄷ」이 辨別되었다는 것은 「ㅅ」의 音價가 [s]였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音을 나타내며 s는 「ㅅ」과 「△」을 나타낸다.

위에서 보듯이 中世語의 終聲結合은 대체로 現代語의 終聲結合과 비슷하나 다음과 같을 特徵을 가진다.

① 左 [r]은 母音에 바로 連結되어 모든 子音과 結合하며, 母音이 다른 子音과 結合하는 모든 子音結合을 가져서 準母音的 機能을 한다.

(母音의 子音合結)

v	vr
vc	vrc
vc ^{-s}	vrc ^{-s}

② 「ㅅ」과 「△」은 子音結合에 있어서 맨 끝에 結合한다. 이 「ㅅ」類音은 現代語에서는 [t]와 中和되어 버리나 中世語에서는 摩擦音인 末終聲으로 實現되었음을 들어낸다.

③ 鼻音 (nasal)은 齒槽摩擦音 (ㅅ△)이나 다른 모든 子音과 結合해 되 다른 終聲과 結合하고 그 끝에 齒槽摩擦音과 結合한 예는 없다.

이러한 中世語의 子音結合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begin{matrix} v \\ n \end{matrix} \left\{ \begin{matrix} (r)(c^{-s})(s) \\ \left\{ \begin{matrix} (c^{-s}) \\ (s) \end{matrix} \right\} \end{matrix} \right\}$$

그런데 이 終聲結合은 다음과 같은 複初聲의 結合과는 그 結合 樣狀이나 制約性이 전혀 다르다.

(p)(s) cv

* 윗 記號의 p와 s는 「ㅂ」과 「ㅅ」을 나타내고 c와 v는 각각 子音과 母音을 나타낸다.

初聲에는 特히 結合上에 特殊한 制約를 갖는데, 이러한 特殊性은 音價面에서도 考慮되어야 할 問題이다. 初聲複子音의 結合上의 特殊性에 대한 具體的인 考察은 뒤에 言及하기로 하고 우선 初聲複子音의 先行結合音이 「ㅂ」과 「ㅅ」 두 音에 限定되고 있다는 事實은 特히 注目할 問題이다.

各自並書와 合用並書는 그 字形上으로 보아同一한 複合初聲結合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兩者間에도 그 結合上에 현저한 差異는 들어내고 있다. 各自並書의 語頭音에는 長音化할 수 있는 摩擦音「ㅆ」과 「ㅎ」에 限定되고 있으며 語中結合에는 多小 自由로운 感을 보이나 「ㅆ ㅎ」以外의 結合은 確固한 結合으로 굳어지지 않고 變異音的 現象으로 稀貴하

게 그結合形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初聲並書는 語頭語中의 모든 環境에 自由로히 出現하며 그結合이 確固한 感을 준다. 이러한 差異는 各自並書와 合用並書의 複子音이 다같이 複合結合의 形態를 取하지마는 무엇인가 다른 特質을 가졌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自並書와 合用並書는 分離하여 考察해야 함은 勿論 子音 合用並書의 경우에 終聲合用並書와 初聲合用並書는 分離하여 考察하여야 하겠다. 終聲合用並書의 複子音은 現代國語에도 쓰이고 있는 바로 그 音價의 考察은 따로 行할 必要가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初聲合用並書의 音價만을 考察하기로 한다.

初聲合用並書의 音價考察에 있어서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 서留意하여야 하겠다.

첫째, 文字自體의 特定音價에 이끌려서는 안되겠다. 한 文字가 音素記號라고 할 것 같으면 그 音素記號가 가지는 여러가지 變異音의 音聲의 探究를 試圖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밥」의 「ㅂ」이 [p] 音이라고 해서 「발」의 「ㅂ」이 [p] 音으로 부탁대고 看做할 수는 없는 것이다. 音素 /p/ 는 여러가지 變異音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쉽게 音素 /p/ 의 다음 같은 變異音을 생각할 수 있다.

p p^l p^h b Φ β

그리고, 音素 /p/ 的 變異音은 위의 音以外의 다른 音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 하겠다.

그 다음으로 留意할 사실은 國語音表記音과 外國音表記音을 混同해서 取扱해서는 안되며 이를 分離해서 考察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東國正韻式漢字音을 비롯해서 洪武正韻譯訓등의 漢字音을 表記한 文字에는 國語音의 表記에 使用된 文字와는 다른 것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은 純國語音研究와는 分離하여 考察해야 할 것이다. 初聲複字音의 경우를 보드라도 中世語資料中의 外國音表記에 나타난 表記例는 國語音의 表記例에 나타난 것과는 다른 性格을 띤다. 國音의 子音合用並書는 두드러진 剝約性을 가진다. 곧 國音에 쓰인 子音合用並書는 合用된 音中 先行子音은 「ㅂ-ㅅ-ㅆ-」의 세 가지에 그 子音의 音種으로 봐서는 「ㅂ-」과 「ㅅ-」 두 개 뿐이다. 그러나, 外國音 轉寫의 경우는 이 剝約性이 欲하는 것을 다음 例가 端的으로 立證한다.

이처럼 外國音 轉寫例에서 「체」의 子音合用並書가 쓰였다는 것은 外國音轉寫에서는先行子音이 「ㅂ-」과 「ㅅ-」에 限定되는 音種의 制約性이存在하지 않았음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점은 그렇듯 音種의 制約를 가져 온 內在的 原因이다. 이러한 原因은 그것이 音價面에存在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音種의 制約이 없는 外國音의 複子音 音價와 音種에 制約성이 있는 國語音의 複子音 音價를 混同해서 同一視해서는 안된다.

II. 合用並書의 制約性

子音合用並書의 制約性은 音種의 制約性과 結合上의 制約性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音種의 制約性은 國語音과 非國語音(漢字音 및 外國音轉寫)의 경우로 그 制約性이 對立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制約性을 圖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類別	例	先行子音
中國漢字音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合用並書 缺음)
우리漢字音	東國正韻	(合用並書 缺음)
外國音轉寫	龍歌地名表記	無制約
우리말 表記	(中世語資料)	制約(「ㅂ-」 「ㅅ-」限定)

韻書翻音이나 漢字音表記에는 전혀 合用並書가 쓰이지 않았으며, 外國音轉寫에는 비록 「체」의 一例에 不過하드라도 「ㅂ-」과 「ㅅ-」에 限定되는 制約性을 벗어난 表記이므로 그런 制約性을 벗어난 表記로 看做된다.先行子音이 「ㅂ-」「ㅅ-」으로 制約되는 合用並書는 우리말에 限定되었다.

結合上의 制約性은先行子音의 結合順序와 다른 子音끼리의 結合樣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先行子音의 結合順序는 「ㅂ」이 先行하고 「ㅅ」이 後續함이 固定된 順序로 되어 있다. 그리고, 個別 子音끼리의 結合은 多樣한 樣狀을 보인다. 그 樣狀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世宗, 世祖代의 資料가 本稿에서 目的으로 하는 바이나.³⁾ 參考를

3) 여기서 말하는 中世語라는 것은 15世紀(世宗, 世祖時代)의 言語를 가르킨다. 現在 中世는 그 以上으로 延長되지만 한글이 制定될 때의 본 모습을 維持한 時期의 言語를 中世語의 典型적인 것으로 보고 이르는 것이다.

위해서 그 뒤의 近世語資料도 함께 들어 보기로 하되 近世語資料에는 별표를 붙인다.⁴⁾ 그리고, 近世語에 와서 그 先行子音이 다른 系統 곧 「ㅂ-」에서 「ㅅ-」 또는 「ㅅ-」에서 「ㅂ-」으로 變한 例는 들지 않는다.

「人」先行子音과의 結合例

	語頭	語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가 (削) 馬解上 69 카딘 (陷) 龍歌 37 * 험 (徇) 初朴通事上 8 : 23 꿈 (夢) 龍歌 13 * 흐스고 (成) 初朴通事上 40 의여 (껴려서) 月解 9 : 17 필썩 (挾) 楞解 1 : 58 사히 (男) 譜譜 19 : 14 짜 (地) 譜譜 9 :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깐 (漸間) 楞解 4 : 67 * 안개 (胞衣) 東醫人部 뒷심풀 (北泉洞) 龍歌 2 : 32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쌔여 (여여서) 月解 9 : 37 * 맷취 (田) 古時調 鄭澈 갓썩 (龍歌25) 안답썩 (애타서) 月釋 7 : 16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 (錦) 訓蒙下 16 며 (餅) 月釋 1 : 42 ヰ (且) 龍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어리라사 (將生) 後用御樂 · 青山別曲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편 (挹) 訓蒙下 22 * 씨더 (燒) 老解上 18 笞 (女) 龍歌 96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을 총 (助詞) 老解下 37 * 밤동만 (한밤중) 初朴通事上 15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瞿 (拔) 月釋序 10 * 쪽 (骨) 蘆溪 · 大平詞 썩 (骨) 月釋 2 : 66 * 쟁나모 (桑) 杜解 1 : 4 * 半밀 (抄) 訓蒙下 23 * 쁘리노라 (散) 杜解 1 : 42 체비여 (비비다) 楞解 2 : 72 센라뇨 (吸) 月釋 2 : 47 (論外)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넘 씨고 (溢) 譜譜 9 : 20 (없음) (없음)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쑨 (나만) 月釋 2 : 28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절다 (尖) 類合下 53

4) 近世語를 參考로 한다는 말은 近世語를 論議의 直接對象으로 끌어 들이려 함이 아니고 中世語로부터의 變化의 모습을 對照하고 一部 中世語 외의 同一한 形態의 例는 中世語 資料에 补充整理해 보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近世語 대로의 資料의 整理라든가 그 音價論議는 別稿로 미룬다.

杏	(없음)	(없음)
从	* 쫓더이(쩐덥개) 同文解上23	
	* 쪽적새(쪽집개) 靑莊全書七卷	
杏	(없음)	(없음)
从	(없음)	(없음)
从	(없음)	(없음)
从	* せ노리(彈)重杜解 11:8	(없음)
从	(없음)	(鉛 음)
从	(없음)	(없음)
从	(없음)	(없음)

「日」先行子音과의 統合 例

	語 頭	語 中
日	* 빼여(拂)請遵 2	* 가슴해(臂助詞) 武藝諸譜 1
	* 빙어(貸)佛頂下 12	
	* 빠(挾)內訓 2:24	
日	(없음)	(없음)
日	呻(摘)月釋 2:12	
	呻 님(隕)龍歌 87	
	晬(開眼)月釋 8:6	
	* 崗(茅) 初杜解 7:1	
	晬(意)龍歌 4	* 일呻(昔)內訓 1:21
	呻(輪)月釋序 4	
	毗豆(別)月釋 2:46	
	呻(垢)月釋 8:11	
日	(없음)	(없음)
日	(없음)	(없음)
日	(없음)	(없음)
日	(論外)	(論外)
日	* 呻(救)急簡易方 1:53	
	* 베더시나(沒) 重杜解 1:49	* 어폐라(無)時用鄉樂譜思母曲
	呻(以)月釋序 5	
	* 艾(艾)內訓序 3	* 어쁘세라(無)時用鄉樂譜·思母曲
	쓰사(用)龍歌 77	* 어쁘(無)樂學軌範·處容歌
	呻(種子)月釋 1:2	
日	(없음)	(없음)
日	(없음)	(없음)
日	(없음)	(없음)

畔	畔(隻)訓民 唉니 거 든(逐)月釋 21:23 呻니(憎)月釋 2:51 쁜더 시리(眷)龍歌 116 唵씨 라(噓)月釋 1:29 (없음) (없음)	* 거슬리(逆)初杜解 23:23 (없음) (없음)
畔	* 헤(剖)杜解 17:1 呻디 벼(裂)月解 2:38	
畔	* 弹(彈)杜解 3:13 呻운(騰)龍歌 48	
畔	* 呕(龜裂)法華 2:243 呻에(隙)重杜解 7:28 (없음) (없음)	(없음) (없음)

「以-」先行子音과의結合

畔	語頭 呻가(解)釋譜 13:10 呻듀름(꺼지다)楞解 9:68 呻니(貫)龍歌 23 晬(蜜)月解 1:42 翌(時)釋譜 9:32 呻(時)釋譜 11:28 呻(時)龍歌 113 (없음)	語中 * 들빼개(荏)訓蒙上 13 호빼(함께)月釋 2:55 (없음)
畔	* 呕(剖)東國新續三綱 孝子國 5:52 呻(時)訓民	호(酉時)訓民
畔	* 呕리고(打破)法語 16	
畔	* 呕를(胝)訓蒙下 8 (없음) (없음)	(없음) (없음)

ㄱ	(없음)	(없음)
ㅋ	(없음)	(없음)
ㅌ	(없음)	(없음)
ㅍ	(없음)	(없음)
ㅎ	(없음)	(없음)
ㄴ	(없음)	(없음)
ㅁ	(없음)	(없음)

위의 예에서 별표를 붙인 것(世宗, 世祖代의 資料에서 보이는 結合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後 音	障 碍 音				有 氣 音				鼻 音			流 音		聲 門 音		
	ㄱ	ㄷ	ㅂ	ㅅ	ㅈ	ㅌ	ㅋ	ㅊ	ㄴ	ㅁ	ㅇ	ㄹ	△	ㆁ	ㆁ	
ㅅ	○	○	○	×	■	×	×	×	○	×	×	×	×	×	×	×
ㅁ	×	○	■	○	○	○	×	×	×	×	×	×	×	×	×	×
ㅂ	○	○	×	×	×	×	×	×	×	×	×	×	×	×	×	×

○ 표는 結合이 되는 것을 보이고 × 표는 結合이 되지 않는 것을 보인다. 同一한 글자라서 結合하면各自並書가 되는 것은 ■로 表示하였다.各自並書가 되는 것은各自並書의 考察로 미루고 여기서는 取扱하지 않기로 한다. 「△」字는 筆者의 見解에 따라「ㅅ」보다 間隙이 큰 卷舌音의인 摩擦音으로 보아⁵⁾ 便宜上 流音類에 넣기로 한다.

위의 圖表로 보아 子音合用並書의 結合上의 制約을 다음 처럼 말할 수 있다.

① 「ㅅ-」과 「ㅁ-」先行子音과의 結合에서 障礙音(破裂音, 摩擦音, 破擦音)과의 結合은 어느 音과의 結合에서나 自由롭다고 보겠다.

② 「ㅅ-」과 「ㅂ-」의 先行子音과의 結合에 있어서, 「ㅆ」과 「ㅃ」의 結合은 不可能하다.

③ 「ㅅ-」과 「ㅁ-」의 先行子音과 有氣音 및 鼻音의 結合에서는 齒槽音(ㄴ, ㅌ)하고만 結合이 可能하다.

④ 流音, 聲門音 등은 전혀 그 結合이 不可能하다.

⑤ 「ㅂ-」先行子音은 「ㄱ」과 「ㄷ」하고만 結合이 可能하다.

그리고, 合用並書는 語頭와 語中에 制限 없이 나타나고, 各自並書의

5) 權在善: △音考(嶺南語文學 第3輯, 1976)

대부분이 語中에서 變異樣狀으로 特殊하고 稀貴하게 나타나는 데 比하여 合用並書는 一般的이고 固定된 性格을 띠고 있음을 본다.

III. 先行子音의 制約性과 國語의 特性

複子音의 先行子音이 「ㅂ」과 「ㅅ」에 限定되어 있는 音種上의 制約은 國音表記에만 나타나고 漢字音, 中國時音 등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現代國語에는 그런 複子音이 없고 그 表記된 文字面으로 보면 世界의 어느 言語에도 그 類를 볼 수 없는 데, 이러한 점은 中世國語에 特有한 複合子音表記 일을 들어낸다. 따라서, 一般外國音의 複子音表記와는 다른 特殊한 複合子音表記일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하겠으며, 그것이 中世國語에 特有하다는 事實에 특히 留意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그 音價의 解明은 外國音과의 對應面에서 探索할 것이 아니고 中世語 自體의 檢討에서 解明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中世國語는 現代國語와는 別異한 別系統의 言語가 아니고 長久한 國語史로 보면 不過五百年이라는 가까운 時期의 國語라는 점을 또한 銘心해야 할 것이다. 五百年이란 時間은 國語에 어떤 變化가 일어날 수도 있을 만한 時期라는 하지만 國語의 根本的인 性格이 變할만한 時間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國語의 根本의이고 特殊한 性格은 그때나 지금이나 變함이 없을 것이며 中世에 있었던 어떤 現象이 現代語에도 存在한다면 그 現象은 같은 樣狀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複子音의 先行子音의 制約性은 中世國語의 特性일 뿐만 아니라 넓게는 國語의 特性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音種上의 制約은 語源探索의 複子音説을 否定하는 証據가 된다. 만약 多音節語의 母音壓出에 依해서 複子音이 形成된다면⁶⁾ 구태어 그 先行子音이 「ㅂ」과 「ㅅ」에 限定될 리 없고 多樣한 音이 그先行音이 될 것이다. 結局에 있어서 音韻上의 어떤 制約은豫想할 수 있으나 外國語의 例로 봐서 許多한 先行子音이 存在할 수 있다. 이러한

6) 比較言語學의 見地에서 中世複子音은 先行音節의 母音壓出에 依한 結果로 이루어졌다는 見解는 離開心을 모았다.

G. 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1949

李基文; 國語史概說, 1961, p. 81

國語上의 語源見解도 마찬가지다

최현비; 한글학, 1941, pp. 604~635

許 雄; 前出書, pp. 316~331

事實은 當時의 外國語 轉寫인 다음 같은 例가 端的으로 立論한다.

綴出關失 닌체시(古論 7:23)

* 古論阿哈出 고론어허츄(龍歌 7:21—22)

關失 蒙韻(四聲通 影印本 p.180)

이러한 先行子音의 制約性은 國語複子音의 特性이므로 이 特性的 考慮없이는 合用並書의 音價가 밝혀질 수 없으며, 이러한 制約性을 갖는理由의 解明이 바로 이 合用並書의 音價를 밝히는 作業의 첫 段階인 것이다.

그런데, 合用並書의 音價解明에 있어 語中에서의 複子音形成樣狀은 複子音 音價解明의 端緒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注目되어 왔다.⁷⁾

값잔	> 카짠
찰어리따	> 칠어리라파
밟디	> 밟띠
업시	> 어삐

이런 경우 複子音化한 複合子音은 現代語의 된소리에 對應된다는 事實에서 中世語의 複子音을 「된소리」로 飛躍解釋하고 있다. 이러한 解釋은, 왜 「日」과 「八」만이 複子音의 先行子音으로 限定되느냐는 그 制約性을 考慮하지 않는 考察이다. 閉鎖移行에 依한 된소리化의 경우라면 다음 같은 複子音이 또한 可能할 것이다.

낙시	> *나지
말꼽고	> *마'꼽고

7) 語中에서의 複子音形成樣狀에 對해서는 일찍부터 注目되고 複子音 音價解明의 論據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 論據에 依해서相反된 두 가지의 見解를 낳았다. 하나는 表記된 文字대로 이루어진 證據로 삼았고 또 하나는 閉鎖移行에 依해서 이루어진 「된소리」 證據로 삼았다. 前者の 경우로는 최현배님, 허웅님 등의 見解를 들 수 있고 後者の 경우로는 李基文님, 趙奎嵩님, 이 은정님 등의 見解를 들 수 있다.

최현배 : 한글갈, 1941. pp. 627~631

許 雄 : 前揭書. pp. 326~331

李基文 : 國語史概說. 1961. pp. 99~100

趙奎嵩 : 李朝初期國語의 硬音·脣輕音 表記에 對하여(青丘大學「論文集」第8輯 1965) pp. 39~44

이은정 : 중세 국어에서의 병서자의 소리값에 대하여(한글 156, 1975)

그러나, 위와 같은 複子音은 없다. 그러므로 閉鎖移行에 依한 硬音의 表記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그 合用並書의 辨別素性이 「된소리」일 것도 否定된다. 앞서 들은 語中複子音의 例가 비록 現代國語의 「된소리와 對應되기는 하나 中世語에서는 單純한 된소리가 아니고 複子音이었다는 事實은 다음 같은 例로 確認할 수 있다.

(A) 거슬뜻- > 거슬즈-

거슬뜻(釋譜9:33 杜解 7:25)

거슬지 허니(杜解 16:28)

(B) 흐舛 > 흐舛

흐舛(釋譜 9:39)

흐舛(杜初上 21)

(C) 쇠똥(鐵屑) > 쇠ㅅ동

쇠똥(譯補 39)

쇠ㅅ동(漢清 368)

(D) 쇠똥(牛糞) > 쇠똥

쇠똥(三綱孝 17)

쇠똥(青丘 p. 120)

위의 例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音節의 複子音의 先行子音이 앞 音節의 終聲으로 還元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複子音이었음을 들어낸다. 만약 그것이 複子音이 아니고 單純한 된소리 였다면 還元될 수가 없는 것이다.

IV. 間音의 音價와 半子音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複子音이었던 中世語의 合用並書와 그것에 對應되는 「된소리」로 바뀐 現代語 글자의 音價를 混同해서 考察해서는 안되겠다. 中世語의 合用並書의 音價는 複子音으로 그 音價를 探索해야 하겠고 그려기 위하여서는 두 母音間에 連結된 子音들 사이의 音節境界의 形成과 거기에 따른 그들의 音價差異를 밝혀 내어야 하겠다. 곧 두 音節의 母音間에 끼인 子音이 앞 音節의 終聲에서 다음 音節의 複初聲의 先行子音으로 바뀌든가 또는 그 反對로 바뀌었을 때, 그 音價差異부

터 解明하여야 하겠다.

값간 (釋譜 13 : 58) : 칼깐 (月釋 9 : 29)

겁동 (楞解 3 : 43) : 손톱 (譯語 49)

슛가락(月釋 18 : 44) : 손가락(月釋 7 : 38)

잇꼬장(月釋 2 : 62) : 이꼬장(釋譜 13 : 37)

윗 예에서 두母音間에 끼인「ㅅ」이 앞 音節의 終聲이 되기도 하고 다음 音節의 複子音의 初聲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間音이다. 이 間音은 現代國語에도 역시 存在하고 있는데, 現代國語에서는 「ㅅ」이 終聲으로 쓰일 때는 中和하여 原音素 [t]로 實現되는 것이 中世語와는 다르나 間音現象임은 同一하다. 그러므로, 中世語의 「ㅅ」間音의 音價는 現代國語 間音의 觀察에서 밝혀 볼 수 있겠다.

現代國語의 間音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發音되고 있다.

A) 間音「ㅅ」을 앞 音節의 終聲 [t]로 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

국엇파(國語科) [kuget'k'wa]

잇파(理科) [it'k'wa]

B) 間音「ㅅ」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

국엇파(國語科) [kugə#k'wa]

잇파(理科) [i#k'wa]

* 間音「ㅅ」을 不分明하게 發音해서 이루어지는 音을 우선 [#]의 記號로 表示함.

「ㅅ」을 不分明하게 發音한다는 것은 「ㅅ」發音을 意圖하면서 發音을始作하나 「ㅅ」과 같은 口腔障礙를 形成하지 못하는 發音을 말한다. 이 音 ([#])로 表示한 音을 現代의 音素論에서 흔히 連接(Juncture)으로 處理하고 있지만 다음 같은 點으로 보아 音聲上으로나 音素上으로나 獨自的인 音價를 認定함이 옳겠다.

① 發音上에서 앞 音節의 다음에 하나의 소리가 存在할 만한 時間的 間隔이 있다.

② 이 間隔 동안의 調音器官이 [j]와 같은 調音狀態를 가진다.

③ 國語 言衆의 意識上 「ㅅ」으로 表記할 만한 것으로 느끼고 그 音을 「ㅅ」으로 表記한다.

다음 같은 發音을 比較해 보자. 「ㅅ」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音을 「여

「ん 音」[#]으로 表示하고 間音 다음에서 硬音化되는 것은 여기서는 演
처 두기로 한다.

(A)	(B)	(C)
국어파 [kugəgwa]	국잇파 [kugət'k'wa]	국잇파 [kugə##k'wa]
이파 [i:gwa]	잇파 [it'k'wa]	잇파 [i:#k'wa]

間音이 없는 (終聲「ㅅ」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發音할 때 (A)와 間音「ㅅ」을 分明한 終聲 [t']로 發音할 때 (B)와 間音「ㅅ」을 어떤 不分明한 音으로 發音할 때 (C)로 發音해 보면 (C)의 「어떤 音」은 그 調音이 [j]와 비슷하다. 그 어떤 音은 舌面이 後硬口蓋 쪽으로 接近하고 口腔의 間隙이 積여지는 調音이다. 위의 (C)와 같은 發音을 意圖하고 그런 音의 狀態에서 發音을 延長하면 摩擦을 일으킬 것을 確認할 수 있고 그 音은 [ç]일을 알 수 있다.

[kugə##k'wa] —— [kugəç]
[i:#k'wa] —— [iç]

이 [ç]音을 摩擦音 글자「ㅅ」[s]으로 表記한 것은 音素 [s]의 變異音으로 意識한 것인데, 그것은 [ç]이 摩擦音인데 緯由한 것으로 理解된다.

複合語間의 插腰音「ㅂ」도 두 가지로 다르게 발음되고 있다.

A) 「ㅂ」을 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

찹쌀 [չap's'al]

입례 [ip't'e]

B) 「ㅂ」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

찹쌀 [չa##s'al]

입례 [i##t'e]

* 插腰音「ㅂ」을 不分明하게 發音해서 이루어지는 音을 우선 [#]의 記號로 表示함

「ㅂ」을 不分明하게 發音한다는 것은 「ㅂ」發音을 意圖하면서 發音을始作하나 「ㅂ」과 같은 兩唇閼鎖를 이루지 못하고 兩唇間에 작은 間隙을 두게 되는 發音이다. 이 插腰音「ㅂ」을 하나의 音으로 記定해야 함은 間音「ㅅ」의 경우와 다찬가지다.

다음 같은 發音을 比較해 보자

(A)	(B)	(C)
차살 [čʰas'äl]	찹쌀 [čʰap's'al]	찹쌀 [čʰa♯s'äl]
이떼 [it'ε]	입떼 [ip't'ε]	입떼 [i♯t'ε]

挿腰音「ㅂ」이 없는 (終聲이 없는) 경우를 假定해서 發音할 때 (A) 와 挿腰音「ㅂ」(終聲「ㅂ」)을 分明히 發音할 때 (B)와 挿腰音「ㅂ」을 不分明하게 할 때 (C)를 比較하여 發音해 보면 (C)의 경우는 입술을 좁히면서 턱 전체를 올려서 後舌面으로부터 입술까지의 間隙을 줄이어서 發音한다. 이 때 後舌面이 높여지고 입술은 間隙이 줄여져 圓脣性을 띤다. 그러나 입술이 좁혀지는 느낌은 아주 적다. 이 音은 [w]音이다. 입술만을 좁히면서 發音하면 [β]音이 되는데, 이 경우는 後舌面이 높여지지는 않는다.

다 같이 「ㅂ」[p]의 變異音인 [w]와 [β]는 그들 變異音이 實現되는 音聲還境이 틀린다.

(1) p→w/v _____ c

찹쌀 [čʰaws'äl]

입떼 [iwt'ε]

(2) p→β/v _____ v

부부 [puβu]

우비 [uβi]

(1)의 경우는 子音 特히 障碍音이 後續하는데, 그 作用이 겹쳐서 口腔間隙이 좁혀지면서 後舌面도 따라 높아져서 圓脣性과 아울러 後舌面이 높은 [w]音이 이루어지나 (2)의 경우는 母音이 後續하므로 口腔間隙은 變化 없이 그대로 크고 입만 좁혀져서 [β]音이 形成된다.

以上으로 現代國語의 音素「ㅅ」[s]과 「ㅂ」[p]에 變異音 [ç]와 [w]가 더 存在함을 確認할 수 있다.

滑音(glide sound)으로서의 [ç]와 [w]는 一種의 半母音(semi-vowel)이라하겠다. 그런데, 이들 半母音에 後續하는 소리를 살펴보면 다음처럼 區分하여 볼 수 있다.

(A) {^w_j} v

와 [wa]	위 [wə]
야 [ja]	여 [jə]

(B) $\left\{ \begin{matrix} w \\ \varsigma \end{matrix} \right\}$ c

찹쌀 [čaws'äl]
잇파 [içk'wa]

子音 特히 障碍音이 後續하는 경우는 그 主音인 子音의 影響을 입어 半母音의 間隙이 더욱 狹小하여 지겠는데, 上掲例 (A)의 半母音 [j]에 對應하는 (B)의 半母音 [ç] 곧 [j]의 摩擦音化는 그런 子音의 影響에 依하여 間隙이 더욱 狹小化한 데 있다고 본다. 實上 (B)의 [w]도 (A)의 [w] 보다는 口腔의 전체 間隙이 더 狹小하다. 이들 (A)의 半母音과 (B)의 半母音을 區分하기 위하여 本稿에서 前者를 半母音 (semi-vowel)이라 하고 後者는 半子音 (semi-consonant)라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間音과 插腰音에 있어서 [s¹] [p¹] 일 때 와 [ç], [w] 일 때 그 音節境界가 다르게 느껴진다.

(A)	(B)
국잇파 [kugət ¹ -k'wa]	[kugə-çk'wa]
찹쌀 [čap ¹ -s'äl]	[ča-ws'äl]

(A)의 경우 (間音과 插腰音이 [t¹] 또는 [p¹]로 發音되는 경우)는 間音은 앞 音節의 終聲으로 音節境界는 그 다음에 놓임이 分明하나 (B)의 경우 (間音과 插腰音이 [ç] 또는 [w]로 發音되는 경우)는 間音과 插腰音의 存在는 흐릿하게 느껴지고 音節境界는 그 앞 母音 다음에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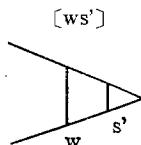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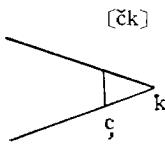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現象의 原因을 點혀 볼 必要를 느낀다.

① 非半子音이 半子音으로 變한 原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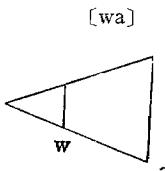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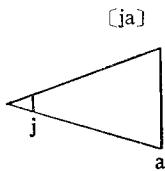
② 半子音化했을 때 音節境界가 바뀐 原因은 무엇인가?

半子音化하므로서 그 存在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音節境界가 바뀐다는 것은 그것이 滑音이며 依存的인 副音임을 들어 낸다. 半子音 또는 半母音과 結合된 複音을 音節核 (syllable nucleus)이라 할 것 같으면 結合上에 있어서의 間隙(aperture)의 狀態로 보아 다음처럼 內破核과 外破核

(A) 内破核



(B) 外破核



으로 区分할 수 있다.⁸⁾

다음 예에서 위에서 말한 音節境界形成에 内破核을 認定하면 다음 같은 音節境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kugəçkwa] → [ku-gə-çkwa]

그리고, 半子音化의 原因은 語中子音連結의 簡略化라고 본다. 國語의 語中母音間의 子音群은 다음처럼 簡略化된다.

① 子音脱落

술나무 → 소나무(松)

* 물개 → 물애 (砂)

물결 → 물결(水波)

8) 内破核 成立의 要件은 語中이다. 곧 다음과 같다.

$$\left\{ \begin{array}{c} s \\ p \end{array} \right\} c \rightarrow \left\{ \begin{array}{c} ʃ \\ w \end{array} \right\} c/v \quad v$$

위와 같은 音連鎖는 두 音節인데, 그 音節分割은 다음 두 가지가 可能하다.

$$A) v \left\{ \begin{array}{c} ʃ \\ w \end{array} \right\} - cv$$

$$B) v - \left\{ \begin{array}{c} ʃ \\ w \end{array} \right\} cv$$

(A)의 半子音은 off glide로서 v { j } —cv와 같은一般的인 結合様狀이고 (B)는 半子音이 子音에 先行하는 on glide로서 特殊하다. 그런데도, A)와 같은 音節境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半子音이 後續하는 間隙이 작은 子音의 影響에서 더욱 子音化해서 子音類가 되어 子音과 結合하는 内破核을 이룰 것으로 보겠다. 다시 말하면 母音間에 複子音을 避하는 경우 그 語中複子音은 結合이 可能하다면 子音과 結合하게 될 것이다. 完全한 子音과 母音일 때를 생각해 보자.

aika: ai—ka

assa: a—ssa (a—s'a)

그러므로, 다음처럼 半母音인 경우는 母音과 結合하고 半子音인 경우는 子音과 結合하게 되겠다.

ajka: aj—ka

açka: a—çka

② 初聲複子音化

숟가락 → 손외락(指)

업시 → 어삐 (無)

初聲複子音化는 母音間의 子音數는 출지 않지만 半子音化하여 內破核을 이루므로 하나의 子音音素처럼 機能하여 앞 音節의 終聲은 주는 것과 된다. 이것도 역시 語中子音의 簡略化現象이겠다.

V. 先行子音의 「ㅅ-」과 「ㄷ-」 制約性과 그 音價

中世語 間音이나 現代語 間音이同一한 文法的 現象이며 그 音價面에서도同一한 性格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中世語의 間音에서도 終聲으로 發音될 때와 다음 音節의 複子音의 初聲으로 發音할 때의 音聲이 달랐음을 들어내고 있다.

「ㅅ」類의 中世語 間音은 「ㅅ」과 「ㄷ」의 두 가지가 있고 이들은 앞뒤의 音聲環境의 制約을 받았다.

(A) 有聲音——無聲音

- ① 母音 ——無聲音 즈켓가재 (89)
- ② ㄴ ——無聲音 狹人ㅅ서리(4)
- ③ ㅁ ——無聲音 닌급德 (118)
- ④ ㄹ ——無聲音 깁マ애 (67)

(B) 有聲音——有聲音

- ① 母音 ——母音 나랑일thon (85)
- ② 母音 ——ㄴ 後△날(26)
- ③ 母音 ——ㅁ 天子△ㅁ수물 (85)
- ④ 母音 ——ㄹ 우회龍 (100)

윗例에서 보는 것처럼 「ㅅ」과 「ㄷ」이 音聲條件에 따라 달리 쓰이는 경우는 間音이 終聲일 때고 複子音의 初聲으로 될 때는 「ㄷ」 間音은 전혀 쓰이지 않고 「ㅅ」 뿐이다. 複子音의 경우는 後行子音이 거의 障碍音(obstruent)으로 制約되고 있기는 하지만 齒槽音「ㄴ」은 複子音의 後行子音이 可能하므로 「後△날」은 「後^n날」로 된 지하나 그러한 複子音은 전혀 없다.

자학(釋譜 17:19)

*後^n날

이러한事實은 間音이 終聲 때의 音聲과 複子音 初聲 때의 音聲이 달랐음을 들어낸다. 그뿐 아니라, 一般 「ㅅ」 [s] 音은 有聲音間에서는 「△」 으로 化하였다. 間音이 終聲일 때는 一般 「ㅅ」 처럼 音聲條件에 따라 「△」 으로 되기도 하여 一般 「ㅅ」 的 性格을 그대로 들어내므로 그 音價는 [s] 이겠다. 그러나, 複初聲의 先行子音일 때는 音聲條件에 따른 變化가 없으므로 다른 音聲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事實은 現代國語의 間音이 終聲일 때는 [t] 로 나고 間音 앞에 音節境界가 느껴질 때는 [ç] 로 남과 對應된다. 中世에서 [s] 로 났던 「ㅅ」의 終聲은 近世語를 通하여 [t] 音과 中和하여 原音素 [t]로 實現되므로 中世語로 遷及하면 [s] 음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間音의 二種音은 中世語에서도 그렇게 實現되었다고 보겠다.

	終聲	初聲
中世語	s	ç
現代語	t	ç

「ㅅ」 間音의 경우로 미루어 插腰音 逸서 二種의 音聲으로 實現된 것 으로 보겠다.

발띠 [parp^{ti}]

발띠 [parwti]

	終聲	初聲
中世語	p	w
現代語	p	w

따라서, 國語 音素 「ㅅ」 /s/ 과 「ㅂ」 /p/의 變異音으로 [ç] 와 [w] 가 追加된다.

複初聲에서 [ç]와 [w] 가 「ㅅ」과 「ㅂ」의 變異音으로 意識 處理된 것은 그것들이 「ㅅ」과 「ㅂ」의 條件變異로 이루어진 것이며 다시 「ㅅ」 [s] 과 「ㅂ」 [p] 으로 還元되기도 한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語中에서 間音이나 插腰音의 「ㅅ」과 「ㅂ」이 複子音의 先行子音이 된 경우는 그 音價가 [ç]나 [w]라고 하면 그와 같은 複子音의 先行子音 「ㅅ」과 「ㅂ」은 半子音 [ç]와 [w]라고 解釋된다. 이렇게

解釋하면 複初聲의 先行子音은 半母音에 限定되고 音種上으로 「ㅅ」[ç]과 「ㅂ」[w]의 두 가지에 限定된 理由가 밝혀진다.

이와 같은 釋釋을 더욱 確認시켜 주는 것은 複子音의 結合樣狀이다.

첫째, 中世語의 複子音 結合에는 「ㅋ」과 「ㅌ」이 없다. 「ㅅ-」, 「ㅂ-」先行子音이 障碍音(obstruent)과는 自由로운 結合形狀을 보이는데 唯獨 「ㅋ, ㅌ」이 두가지의 結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原因이 複子音 自體의 音聲性格에 內在한 것으로 理解된다.

		後音	ㄱ	ㄷ	ㅂ	ㅅ	ㅈ
先音	ㅅ	○	○	○	×	■	
	ㅂ	×	○	■	○	○	

※ ○은 結合이 可能한 것, ×은 結合이 不可能한 것, ■은 重子音이 되는 것을 나타냄.

先行子音「ㅅ-」과 後續子音「-ㅅ」의 結合이나 先行子音「ㅂ-」과 後續子音「-ㅂ」과의 結合은 그 結果가 重子音(各自並書)이 되므로 複子音에서는 論할 필요가 없겠다. 그것을 除外하면 「ㅋ」과 「ㅌ」外는 自由로운 結合을 한다. 「ㅋ」[cts]의 結合이 없다는 것은 [ç]과 [ts]이 다 같이 硬口蓋音이므로 [ç]이 [ts]에 吸收되어 複子音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겠다. 그리고, 「ㅌ」의 結合이 없는 것도 「ㅋ」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ㅌ」이 [pk] [βk] 따위라면 [p]와 [k] 또는 [β]와 [k]는 각각 그 調音點이 兩脣과 軟口蓋여서 서로 다르므로 [cts]처럼 先行子音이 뒷 子音에 吸收되는 現象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wk]의 경우라면 [w]는 円脣性과 더불어 後舌面도 높은 소리이므로 後舌面이 軟口蓋에 調音되는 [k]에 그 後舌面에서 吸收되겠다. 이러한 事實은 複子音의 先行子音「ㅂ」의 音價가 [w]임은 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겠다. 또 複子音의 後行子音과의 結合에는 特定한 制約이 있음을 본다.

		障碍音					有氣音			鼻音			流音			聲門音		
先音	后音	ㄱ	ㄷ	ㅂ	ㅅ	ㅈ	ㅎ	ㅍ	ㅊ	ㅋ	ㅌ	ㅎ	ㅍ	ㅊ	ㅎ	ㅍ		
		○	○	○	■	×	×	×	×	○	×	×	×	×	×	×		
ㅅ	ㅂ	×	○	■	○	○	○	×	×	×	×	×	×	×	×	×		

※ ○은 結合이 可能한 것, ×은 結合이 不可能한 것, ■은 結合이 重子音이 되는 것을 表示함.

調音様狀에 따라 間隙이 적은 障碍音(破裂音, 破擦音, 摩擦音), 有氣音, 鼻音 間隙이 큰 流音類, 聲門音으로 나누어 보면 가장 自由로운 結合은 障碍音이다.

그런데, 有氣音 「ㅋㅌㅍㅊ」은 그들의 口腔內의 調音作用으로 봐서는 無氣障碍音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複子音의 後行子音으로서는 自由롭게 結合되지 못한다. 이러한 事實은 障碍音이 複子音인 內破核의 音聲條件이 되고 있는 事實과는 어긋나 보인다. 그러나, 有氣音은 口腔內의 調音作用 外에 聲門調音을 隨伴하는 音이며 聲門音 「ㅎㅇㅇ」등은 전혀 複音化할 수 없다는 事實을 考慮하면 그 聲門調音이 複子音化를 防害하는 것으로 보인다.

「ㄴㅁㅇ」의 경우도 通鼻性 때문에 內破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有氣音과 鼻音 가운데 齒槽音만이 複子音을 形成한다. 이것은 「ㅁㅇ」등이 口腔周邊을 閉鎖하여 口腔 内部에 空間이 그대로 存在하는 데, 比하여 「ㄴ」은 口腔의 全體 間隙이 적어지고 口腔中央部 가까이 閉鎖되므로 間隙의 狹小化가 크게 되어 內破核화의 音聲條件를 이루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나, 이 齒槽音의 鼻音과 有氣音과의 結合에서는 可能한 것과 可能하지 않는것이 있다.

後音 先音	ㄴ	ㅌ
ㅅ	○	×
ㅂ	×	○

※ ○은 結合이 可能한 것, ×은 結合 不可能한 것을 보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可能한 것) ցn wtʰ

(不可能한 것) ցtʰ wn

結合이 不可能한 경우의 原因을 살펴보면 [çtʰ]는 [ç] 이 摩擦音 [h]를 가지는 [tʰ] 音에 吸收되어 複子音이 이루어지지 못하겠고 [wn]는 다른 有聲音인 위에 [w]는 後舌面을 높여 軟口蓋와의 間隙을 좁히는 데 [n] 音도 콧길을 틔우기 위해서 軟口蓋를 내리므로⁹⁾ 자연히 後舌面과

9) The principal member of the English n-phoneme is formed as follows.

The mouth-passage is completely blocked by raising the tip of the tongue to touch the teeth-ridge as shown in Fig. 74; the soft palate is lowered so that, when air is emitted by pressure from the lung, it passes out through the nose; the vocal cords are made to vibrate so that 'voice' is produced.]
(Daniel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 167)

* 斜體字는 筆者가 바꾼 것임

歎口蓋間의 間隙上에서 서로 비슷한 調音이 이루어지므로 [w]은 [n]音에 吸收되어 複音이 이루어지지 못하겠다. 이 結合上의 制約現象도 先行子音「ㅂ」이 [w]音임을 證據하한 例가 된다. 「ㅂ」先行子音의 音價가 [p]나 [ɸ]音 같으면, 타액 말하던 後舌面과歎口蓋間의 間隙이 좁혀지지 않는 音이거나 摩擦音이면 鼻音 [n]에 吸收될 수 없는 것이다.

VI. 「ㅂ-」 두 先行子音과 結合한 複子音

「ㅂ-」先行子音은 「ㅂ-」과 「ㅅ-」과 같은 先行子音이며 「ㅂ」과 「ㅅ」이라는 音種上의 制約를 받는 점으로 보아 複子音의 先行子音「ㅂ-」[w]과 「ㅅ-」[ç]의 重複音 임을 推測할 수 있는데, 이것을 證據하는 것으로 다음 같은 語例를 볼 수 있다.

넓디고 (月釋 2:48)

넘씨고 (月釋 9:20)

넘띠고 (金三 3: 7)

위의 例는 「넘띠-」의 語中複子音「ㅌ」은 間音「ㅅ」을 가진 「넓디-」의 複合語의 母音間의 「ㅅ」音이 滑音化 [ç] 하므로서 音節境界가 移動되고 다시 音節境界信號로서 [m] 同系의 音인 脣音性을 띠 [w]滑音이 發生하여 [wçt]의 子音群이 形成된 것을 알 수 있다.

넓디고>넘씨고>넘띠고

複合語間의 先行語末音이 脣音일 때 音節境界信號로서 [w]滑音이 發生함은 다음 例가 또한 證據를 보인다.

霉薤〔莊〕(訓蒙上 13) > 霉蘚〔蘇子〕(四解上 40)

「ㅂ-」先行子音과의 結合上의 制約은 다음과 같다.

先音	ㄱ	ㄷ	ㅂ	ㅅ	ㅈ	ㅊ
後音	○	○	×	×	×	×
ㅂ						

「ㅂ-」先行子音은 「ㅂ-」과 「ㅅ-」先行子音의 重複音이므로 後續音과의 結合에 있어서 「ㅂ-」과 「ㅅ-」先行子音의 結合制約이 그대로 適用될 것이다. 그런데, 윗표의 結合樣狀은 이들과 다른 樣狀을 보인다.

(結合 不可能한 경우)

(A) ㄕ 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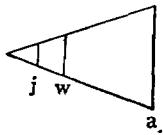
(B) ㄕ

(C) ㄕ 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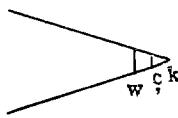
(A)의 「ㄕ」과 「ㄕ」의 경우는 인접된 「-ㄕ」과 「-ㄕ」이 서로 비슷한 調音이므로 한 音이吸收되어 버려 그런 複子音이 이루어질 수 없겠고 (B)의 「ㄕ」 [wçp]는 [w]와 [ç]는 調音作用 中 겹치게 되므로 [w]와 [p]가 隣接하게 되는데, [w]의 圓脣性은 [p]의 圓脣性에吸收되어 複音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리고 (C)의 「ㄕ」 [wçn]도 마찬가지로 [w]와 [ç]의 調音作用이 겹치면 [wn]의 경우로 되어 [w]는 [n]에吸收되고 말겠다. 「ㄕ」은 인접된 「-ㄕ」이 그들의 摩擦調音 때문에 한 音이 다른 音에吸收되어 三重子音은 이루어지지 못하겠다.

또 하나의 結合上의 制約은 先行子音「ㄕ-」의 結合順序이다. 「ㄶ-」의順序로는 結合되지 않고 「ㄕ-」順의 結合밖에는 없는데 이것은 複子音끼리 間隙의 段階的的 結合에 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音節核을 形成하는 경우의 音聲的樣狀으로 보인다.

(A) 外破核
화 [jwa]¹⁰⁾



(B) 內破核
화 [wçk]



VII. 語頭複子音의 音價

위에서 語頭複子音의 先行子音「ㅅ-」과 「ㅌ-」의 音價가 [w]와 [ç]임을 論述하였다. 語中複子音의 경우는 現代國語에서도 그 殘存形이 間音이

10) 「화」는 現代語에 存在하지 않고 特히 中世語에서도 國語音에는 쓰이지 않는 소리다. 이 音價는 [jwa]로 推定한다. 한글의 「ㅆ」와 「ㅌ」는 [jo]와 [ja] 이므로 表記된 文字대로 보면 [joja]로 되겠으나 한 音節로서의 發音은 그렇게 實現될 수가 없겠고 [jwa]나 [joa]로 實現되겠다. 그런 데, 解例에 說明된 中聲字로는 「홰」, 「훠」는 「홰, 훠」 [wa, wa]에 對應되므로 각각 [jwa, jwə]로 推定한다.

나 捅腰音 등에서 보이고 또 그 形成過程을 記錄에서 엿볼 수 있지만 語頭音의 경우는 그러한 證據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複子音의 先行子音 「ㅅ-」과 「ㅂ-」이 [ç]와 [w] 類音임은 自體證據가 되는 制約性이 語頭에 있어서도 語中의 경우와 전혀一致하므로 語中의 音價는 語頭의 音價와 어느 모로一致할 것이 分明하다. 만약 語中과 語頭의 어려운 音聲性格이一致하지 않는다면 先行子音이 「ㅅ」과 「ㅂ」의 둘에 限定되는 音種上의 制約과 「ㅋ」, 「ㅌ」의 結合이 不可能하고 後行子音이 障碍音과 齒槽音의 有氣音과 鼻音에 限定되는 結合上의 制約性이 그대로 꼭一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内在的인 證據로서 語頭의 先行子音 「ㅅ」과 「ㅂ」이 [ç]와 [w] 類音임이 證明된다 하드라도 다음 같은 問題가 解明되어야 하겠다.

① [ç]나 [w]를 先行子音으로 하는 語頭複子音의 成立

② 國語에 있어서 語頭複子音의 可能性

[ç]나 [w]와 結合한 複子音은 그 類例를 볼 수 없으며 特히 現代國語에는 語頭複子音은 없고 國語와 親族關係의 緣이 두터워 보이는 알타이語族에는 複子音이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古代國語나 中世國語에 他語族에서 보이는一般的인 語頭複子音 結合이 存在하였을 可能性은 심히 疑心된다. 따라서, 語頭複子音은一般的인 複子音이 아니고 單音으로 意識될 만한 特殊한 複音으로 보인다.

現代國語의 語頭에서 쓰이는 子音 가운데의 特殊한 複子音으로는 有氣音(Aspirate)이 있다. 이 有氣音은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① 破裂音과 破擦音 등과 상당히 自由로운 結合을 한다.

⇨ [kʰ]⇨[tʰ]⇨[pʰ]⇨[tsʰ]

② 單音처럼 意識된다.

이 有氣音으로 봐서 이 有氣音과 같은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 있는 複音은 國語에서 그 成立이 可能하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語頭에서 [ç]과 [w]를 先行音으로 한 完全한 複子音은 成立될 수 없도록 兩脣化音(labialization)과 口蓋化音(palatalization)은 可能하겠다. 口蓋化音은 非摩擦口蓋化音이一般的이나 中世語의 경우 摩擦音 文字「ㅅ」을 쓴 것으로 보아 摩擦口蓋化音으로 解釋할 수 밖에 없다. 非摩擦口蓋化音의 副記號〔〕에 對해서 摩擦口蓋化音의 副記號는 [t]를 쓰기로 한다. 따라서, 中世語의 語頭複子音의 音價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서 [kç] 츠 [tç] 챈 [pç] 푸 [nç] 푸 [tʷ] 푸 [sʷ] 푸 [tsʷ]

辟 [t^{hw}] 𠙴 [k^{hw}] 𠙴 [t^{hw}]

口蓋化音이나 圓脣化音은 두 調音이 겹친 複音이다. 그런데 破裂音과 摩擦音이 겹쳐서 發音될 경우 破裂音은 破裂할 때 짧게 끝나지만 摩擦音은 그보다 길게 나므로 끝에는 摩擦로만 들리게 되겠다.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k^w] (시)는 [k^j]와 같겠지만 끝에 摩擦音이 들리게 되고 [t^{wj}] (𠙴)는 [t^{wj}]와 같겠지만 끝에 摩擦音이 들리게 되겠다.

또 하나의 問題는 [t^{wj}]와 같은 調音이 可能 할까의 問題이다. 齒槽音 [t]와 口蓋音 [ç]가 同時에 調音될 수 있겠으며 特히 口腔內에 三重子音調音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極히 疑問이다. [j]音의 調音點이 多樣한 것을 考慮하면 [j]의 調音點이 [w]의 後舌面에 옮겨져 거기에 吸收되어 調音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는 [t^{wj}]는 實上 [t^w]에 不過하다. 이렇게 보면 [t^w]와 [t^{wj}]는 同一한 音聲實現이 되겠고 摩擦口蓋化音의 경우는 摩擦이 隨伴하므로 [t^{wj}]의 音聲實現은 [t^w]와 같이 되겠다. 그러므로 語頭音의 「𠙴」은 [t^w] 「𠙴」은 [t^m]로 實現된 것으로 본다. 語頭에서와 마찬가지로 子音下에서의 複子音도 半子音으로 實現될 수 없다. 半子音이나 半母音의 過渡音은 앞 또는 뒤에 母音과 連結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곧 間隙이 작은 狀態에서 間隙이 큰 調音으로 옮겨가든지 間隙이 큰 調音으로 부터 間隙이 작은 調音으로 옮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間隙이 적은 調音間에 끼어서는 過渡音은 이루어질 수 없다. 子音 다음에 複子音이 연결될 경우는 間隙이 작은 調音 사이에 半子音이 끼이게 되므로 그 過渡音은 이루어질 수 없겠다. 따라서, 이 경우도 語頭에서와 같은 音聲實現이 되겠다. 具體的으로 例를 들면 다음 같은 경우에 (A)와 같은 音聲環境에서의 半子音으로 實現될 수 없고 (B)와 같이 口蓋化音 또는 兩脣化音으로 實現되겠다.

等례	참조
(A) [terksw̡tai]	[tsamçkan]
(B) [terkst̡wai]	[tsamkçan]

그러나 이러한 複子音의 앞에 母音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過渡音 實現이 可能한 音聲環境이므로 圓脣性과 口蓋性은 半子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례 [iwçtai]

이처럼 口蓋化音과 兩脣化音은 어떤 單語에 固定된 音價가 아니고 頭音에 一般子音이 實現되지 못하는 制約에서 오는 것이므로 音聲環境에 따라 可變的인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中世의 初聲複子音의 音價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文 字	語 中	語頭 및 子音下
ㄕ	çk	kç
ㄔ	çt	tç
ㄕ	çp	pç
ㄊ	çn	nç
ㄕ	wt	t ^w
ㄕ	ws	s ^w
ㄕ	wts	ts ^w
ㄕ	wt ^h	t ^{hw}
ㄕ	wçk	k ^a
ㄕ	wçt	t ^a